



가야산의 일출 법전스님

### 퇴설당은 쉼의 의미...집주인과 잘 어울려

종정 스님께서 머무시는 퇴설당(退雪堂)은 말 그대로 '평 빈' 집이었습니다. 퇴설(退雪) 즉 '눈 더미'를 이룸이니, 선가(禪家)에서는 햇빛이 나면 곧 사라질 눈 위에 빗대어 '공경'을 말하기도 합니다.

본디 퇴설당은 팔만대장경을 돌보는 스님이 머무는 노천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계종의 큰 어른이 그곳이 계십니다. 부처님께서 팔만사천 장공설을 하시고도 한 마디도 이른 바 '없다'고 시치미를 떼시는 것과 흡사하다 하셨습니다. 집 주인과 집이 참으로 잘 어울렸습니다.

큰 절이나 작은 절이나 믿음은 하나

큰 집에 사나 작은 집에 사나 인간은 하나

— 조병화 시, '해인사' 전문

살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만물의 평등'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슴으로 받아들여 하는 시적 성취를 이루어 냈습니다. 해인사에 대한 직접 언급 없이도 해인사의 '해인사다운'을 넘어서 보여 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비되는 작은 것에 대한 소중함을 환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걸음에서는 해인사의 작은 모습을 찾아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큰 것 보다는 작은 것,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냥 지나치고 말 것들을 살피기로 했습니다.

역시 어려웠습니다. 이모저모를 따져 봐도 해인사는 큰 절이었습니다. 가야전을 거슬러 오르는 일주문까지의 길살에 선 나무들은 하나같이 우뚝했고, 일주문에서 올라다본 가야산의 근골도 장대했습니다. 그러나 내 눈에는 해인사가 더 커 보였습니다. 해인사가 가야산에 깃든 것이 아니라 해인사가 가야산을 등에 업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알뜰이 우리 산천을 빼어난 안목으로 살핀 바 있는 조선의 지리학자 이종환은 그의 저서인 '택리지'에 가야산을 이렇게 그리

## 크 집엔 각면

### 가야산 해인사

# 8만대장경 봉안 범보종찰 마치 가야산을 엮은 듯



◊녹음의 바다 속에서 '해인삼매'에 든 범보종찰 해인사.

## 성철·혜암·법전 3대째 조계종정 주석 경관전 담장 세월흔적 우담바라인 듯

고 있습니다.

"경상도에는 석화성(石火聖)이 없다. 오직 합천 가야산은 범보한 돌이 줄을 잇달아서 불꽃 같으며, 공중에 따로 솟아서 극히 높고 빼어났다."

이런 가야산을 등에 업고도 해인사는 천하태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해인사의 스님들은 하나같이 선이 굵습니다. 성철, 혜암 그리고 지금의 법전 스님에 이르러서, 조계종의 종정스님이 삼대에 걸쳐 이 절에서 나온 것만 봐도 그 기백을 능히 짐작할 만합니다.

작은 것을 보겠다는 생각 자체가 억지였는지, 눈에 되는 것은 온통 큰 것 뿐이었습니다. 전각들의 권역에서도 '大' 자만 더 크게 보였습니다. 해탈문의 이마에도 <해동 원종 대 가람>이라는 편액이 걸려 있고 그 안에도 <해인 대 도량>이라는 편액이 걸려 있습니다. 금당에도 앞에는 <大 적광

전> 뒤에는 <대 방광전>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대방광전을 뒤로 하고 성큼 돌계단을 오르니 그곳 또한 <관만 대 장경>입니다.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고 일주문을 벗어나서, 가야전을 왼쪽에 끼고 흥제암으로 향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녹음 짙은 산길 위로, 필찍이는 계곡물 소리가 분수처럼 뛰어들어옵니다. 그 소리에 취할 새도 없이 반가운 그림 하나가 눈에 걸립니다. 외나무다리입니다.

흥제암과 사명 스님 부도탑으로 발길을 이끄는 외나무다리 위에 몸을 세웠습니다. 계곡 바위가 그리 깊지 않았지만 금하게 흘러내리는 물줄기가 아찔한 상승감을 일으킵니다. 이 다리의 내력에 대한 기록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리 앞에 하마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조 역병의 시기에 말을 타고 도량을 들락거리는 유생들의 횡



포를 은근히 꾸짖은 다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작은 것으로 능히 큰 잘못을 고쳐놓는 집집다운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학사대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고운 최치원이 이곳 해인사에서 종적을 감추기 전에 꽃은 지팡이가 살아났다는 전나무 곁에 섰습니다. 그곳에서 바라본 해인사는 우뚝하기보다는 그윽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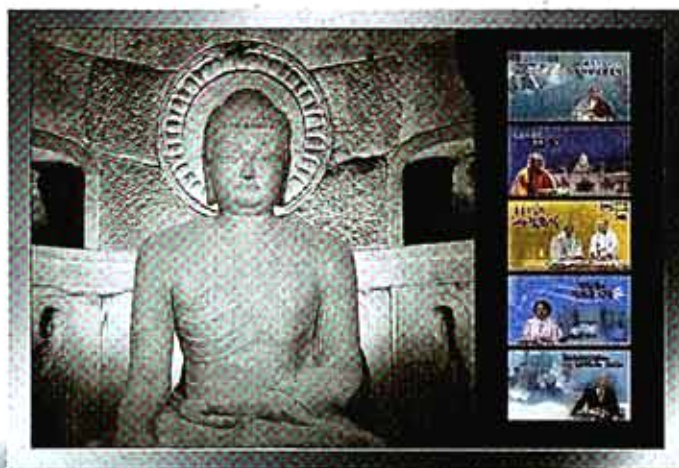
걸음을 따라서 걸쳐왔다 풀려나는 지붕을 바라보며 대장경관전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또 하나의 국보를 만났습니다. 다소곳한 높이의 잘 구운 도자기 같은 담장. 그 위에 포개진 기왓장 위에 서린 세

월의 흔적, 진정 우담바라는 저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햇결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돌이 울 채비를 하기 위해 해우소에 들러 근심 한 줄기 풀어 놓는 순간, 진일보(眞一歩)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낱자 화장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 걸음 더'라는 말과 다를 바 없건만, 그 순간에는 크게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진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요즘 누는 일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오늘의 인류는, 과연 진보한 것일까요.

글=윤제혁 기자 사진=박보하(사진가)

# 영상법당! 불교텔레비전



• 동국대 7F 불교아카데미  
한국 종교문화의 이해(월)  
인도불교의 사상과 역사(화)  
정토사상(수)  
여래장사상(목)  
한국 선사상 연구(금)  
한국 불교사상사 연구(토)

해거스님의 유식 삼십송강의  
매주금, 토요일 08:50 / 19:55

성운스님 불경강좌  
매주토요일 10:15 / 20:35

홍승스님의 사찰음식  
매주수요일 09:20 / 19:15

구본일의 태고와 영상  
매주화요일 09:20 / 19:55

간디라 불교와 한국의 미래  
매주목요일 09:20 / 19:15



불교텔레비전에서는 불교인터넷방송 불교위성방송을 하기 위하여 법당을 건립합니다. 큰 행복 큰 자유 누리고저 지혜와 복덕 구축하도록 큰 공덕 지으소서

불교텔레비전주식회사  
회장 석성우  
대표이사 이수덕

- 삼천불은 청동불로 조성됩니다.
- 가족단위 원불조성도 가능합니다.
- 삼천불조성금은 분할하여 입금하셔도 됩니다.
- 법당위치: 서울시 관악구 봉천8동 945-2번지 (지하철2호선 봉천역 3번출구)
- 입금계좌번호 : 827-25-0015-134(국민은행) 예금주 : 불교텔레비전(주)
- 문의전화 : (02)3270-3366~7 불교TV사업부 (02)2648-0108, 1211 사찰순례팀

최고의 진리 바로 당신의 소중한입니다.

불교TV후원 전화

060-700-1032(ARS)

한통화에 2,000원의 후원보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www.btn.co.kr

불교텔레비전주식회사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41(금호천기빌딩)

불교TV시청방법 [유선방송 : 전국 각 지역의 종합유선방송(SO)에 연락하여 신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 스카이라이프신청문의 (02)3270-3366~7]  
불교TV방송프로그램 판매 [안내전화 : (02)3270-3366~7 불교TV사업부]